

백준도

오늘은 친구와 자전거를 타고 의정부를 갔다 처음에는 빨리 탔지만 점점 느려졌다. 중간쯤 갔을 때 정말 힘들어서 포기할려고 했지만 친구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자해서 결국엔 끝까지 갔다. 다 도착한 후 다리가 풀렸지만 알수 없는 부딪힘을 느꼈고, 다시 돌아갈길을 생각하니 정말 막막했었다. 자전거를 타고 돌아올때 자전거 타는 것이 인생과 연결된 것이 느껴지게 느꼈다.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려면 힘들지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든것을 버티내면 자기가 목표한 것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느껴서 보람찬 하루였다.